

# 협력업체들 “정부 보상 제대로 안해줘 부도 위기”

“개성공단 중단 사태이후 사실상 피눈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원·부자재를 납품해왔던 협력업체들은 공단 폐쇄 6개월여가 지나지만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들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대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힘없는 2~3차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왔던 기업들 중 일부 기업은 자금 압박에 못이겨 기업 활동을 접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삼덕통상에 원자재를 납품해왔던 (주)신을 김중태 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주기업 뿐 만 아니라 원부자재를 납품하던 영세기업들도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고 있다. 도산할까 몹시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2월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납품대금 5억2500만원이 아직 미수 상태”라며 “직원들 급여가 벌써 4개월째 밀려 있고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돈달라고 연일 찾아와 사체까지 빌려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거래처에서 주문이 줄어 매출이 급감했으며 임대료, 전기세, 근로자들 급여를 주고 나면 매월 빚에 허덕인다”며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우리 영세 납품업체는 절망이 성름 다가오는 것 같다. 직원들에게 비극적인 추석을 맞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부실업 김남태 대표는 “개성공단 사태이후 정부와 거래처를 믿고 기다려 왔는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며 “저희 같은 영세기업에 6개월



정부 지원책 사실상 거부  
입주업체 법적소송 진행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납품기업도  
도미노처럼 피해 입어  
지원금 전액 지급돼야



이 지나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저는 요즘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제일 두렵다”며 “출근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사장님 월급 언제 줘요라는 말이다. 어떤 직원은 물건을 짊어 던지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거래처에서는 결제가 안돼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오기도 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찾아가봤지만 해당 업체에서도 피해액의 20~30%까지 보상이 안돼 납품 대금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손실액 90%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문기사를 보면 연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가득한데 왜 입주기업들은 우리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도저히 알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에이스종합상사 조순경 대표는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해 들은바에 따르면 정부에선 보상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근로자·협력업체의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을 해줬다고 하지만 거래업체에서는 한 푼도 받은적 없다고 한다”며 “어떤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우리 하청 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 대표는 “6개월동안 돈한푼 못받고 증업원 월급도 못주고 총독세 부과세 못내서 세무서에서는 자살압류 한다고 공문을 날리고 추석

은 다가오지, 정말 사면초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아이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급여는 벌써 4개월째 밀려 있고 여기저기 납품업체에서는 돈달라고 연일 찾아온다”며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아들에게 휴학을 권유했다. 이런 부모

의 심정을 아는가”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대금으로써 대부분이 영세 상공인들의 원·부자재 대금이나 임금등의 비용으로 쓰일 생계형 자금”이라며 “개성공단 피해액 중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전액 지급돼 우리 협력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보상문제 ‘안풀려’ ... 정부·업체 ‘평행선’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이후 6개월이 지난지만 보상안을 둘러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정부의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 지원 대책 등이 입주기업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국회 청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기

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경협보험 가입업체에게 투자자산 피해금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업체의 경우 45% 수준까지 지원한다. 또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생계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최대 22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주재원에게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형태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실제 지원은 정부가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해졌으며 지원금도 22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실질적인 지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이 정부 임의의 기준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기업별·근로자별로 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가 달라진다고 비판하며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입주업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2~3차 협력업체들의 줄 도산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받기까지는 관련법 개정, 법적 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중

정부, 예비비 등 이용  
피해규모 67%에 해당  
5190억원 우선 지원

입주기업들 “실제 지원  
정부 확인금의 70%  
실질적 지원이 아냐”

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2~3차 협력 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거래를 진행해왔던 영세 협력업체를 위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입주

업체와의 영건 실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입주 업체에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업체들과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주)신을 김중태 대표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2월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납품대금 5억2500만원이 아직 미수 상태”라며 “직원들 급여가 벌써 4개월째 밀려 있고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돈달라고 연일 찾아와 사체까지 빌려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경부실업 김남태 대표는 “개성공단 사태이후 정부와 거래처를 믿고 기다려 왔는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며 “저희 같은 영세기업에 6개월이 지나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스

##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 · 문화 · 관광 ·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 의사 기념관